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1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제표준협력과 정기원 과장(509-7399), 전종윤 연구사(509-7400)

아프리카 표준에도 韓流 열풍 분다.

- 기술표준원, 아프리카 표준제정 및 표준교육 실시 -

□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 기술표준원(원장: 성시헌)에서는 아프리카 지역표준의 재·개정 사업을 아프리카표준화기구(ARSO)와 공동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.

○ ARSO 사무총장은 한국 표준체계의 우수성과 국내 기술발전 및 산업화 실적을 높게 평가하여, 한국을 아프리카 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 국가로 선정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

○ 첫 단계로 지난 7월부터 한국의 표준 전문가들이 ARSO의 800여개 표준을 분석하여, 우리 산업과 관련이 높은 전기, 전자, 기계, 건설, 환경 등 300여종의 개정이 필요한 표준을 도출하였고,

○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동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ARSO 기술위원회를 통해 심의·확정할 예정이며, 향후 타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표준을 제정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.

* ARSO(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는 아프리카의 표준·품질의 향상을 통해 산업과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7년에 케냐 나이로비에 설립된 아프리카 지역표준화기구로 34개 아프리카 회원국으로 구성 및 운영

□ 한편,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9~21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아프리카 25개국에서 참가한 50여명의 공무원, 교수, 연구원을 대상으로 표준교육을 실시하였다.

* 25개국 : 남아공, 케냐, 나이지리아, 가나, 나미비아, 탄자니아 등

○ 이 교육에서 각 국 표준화기관의 표준교육체계, 초·중·고·대학의 표준교육, 표준·품질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을 전파하였고, 특히 하루를 Korea Day로 지정하여 한국의 표준교육 체계 및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.

○ 동 교육과정은 ISO가 한국의 표준교육 시스템을 대표적 우수 모델로 표명하고, 한국형 표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.

□ 기술표준원 안종일 국장은 아프리카지역에서 표준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향후 역내의 통합된 강제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으로, 對아프리카 교역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표준 및 기술기준 동질화 사업 등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협력과 전종윤 연구사(☎ 02-509-74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